

광주시, 빅데이터 활용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광주시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온 19~26도, 강수량 3mm 이하 때 자살 시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2012~2014년) 발생한 자살사고와 119 구급자료, 응급 진료정보, 기상자료, SNS 게시물 등 내·외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빅데이터는 대용량·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 데이터 간 상호관계를 여러 관점에서 조망해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3년 119 자료·기상 상호관계 등 분석

강수량 3mm 이하때 자살 시도 48.2%

청소년 자살언급 오후 10시~자정 최대

특정시기·시간대별 맞춤형교육 강화하기로

비와 자살 시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가 3mm 이하일 때 절반에 가까운(48.2%)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할 때 심적 우울감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살을 시도한 935건을 분석한 결과

월요일이 16.1%로 가장 높았으며 목요일(11.0%), 화요일과 금요일(14.8%), 일요일(13.9%), 수요일(13.2%), 토요일(12.2%) 순이다.

하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자살 반복시도자는 토요일이 22%로 가장 높았으며 일요일은 6.7%였다.

자살 시도 원인으로 정신문제가 28.4%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경제문제 21.4% 순이다. 연령대는 40대 19.5%, 50대 19.2% 등이다.

자살 시도 주기는 5개월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살 반복 시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63.2%)이 높았다.

온라인상에서 자살 언급은 트위터가 77%를 차지했으나 청소년만을 따로 분류할 경우 블로그 50.1%, 트위터 29.4%로 다양했다.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의 자살 언급은 방과 후인 오후 4시부터 상층해 10시에서 자정까지가 가장 많았다.

광주시는 “데이터 분석 결과 기온 19~26도, 강수량 3mm 이하일 때 자살 시도가 많았고, 세월호 침몰사고,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자살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별 시도주기, 요일 등에 따라 자살 반복 시도자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자살 언급이 잦은 SNS, 블로그 계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특정시기 및 시간대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산업’ 버무린 광주세계김치축제 내일 개막

지역서 계약재배된 재료 사용
中·베트남·日 김치산업관
콘서트·디자인전·명인대회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하는 ‘광주세계김치축제’가 24일 개막한다.

이번 행사는 ‘김치! 광주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28일까지 5일 동안 남구 광주김치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전시, 공연, 공연, 체험행사 등으로 짜여졌다.

산업화 축제를 표방한 이번 축제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로 생산된 김치 원부 재료를 행사에 사용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중국·베트남·일본 등 세계 김치산업의 현주소를 집약한 산업관도 운영된다.

행사 개막식(24일 오후 1시)에는 시

민, 외국인, 해외 김치CEO 등이 참석하는 ‘김치찌개 나눔행사’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그는 ‘김치사랑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축제 기간 5개 자치구의 시민한마당이 열리고, 다양한 재능나눔 콘서트와 김치 100선 실물전시관, 김치축제 히스토리전, 세계김치사진전, 김치산업 디자인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됐다.

김치명인경연대회 등 경연대회와 김치버무림 체험, 명인아카데미 등 체험행사와 플리마켓, 발발체험, 피크닉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남성우 광주세계김치축제 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김치를 주제로 한 즐거움과 더불어 산업과 연계를 강화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세안 언론인 문화전당 방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 기자 30여명이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로부터 문화전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들은 외교부가 주최한 한-아세안 언론인 교류사업 참가자들이다.

최현배기자 choi@

고은 시인, 평화의詩 낭송 내달 1일 파리 유네스코서

고은(82) 시인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은 시인과 함께 재일 음악가 양방언도 유네스코 본부에서 평화의 사도로 세계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 본부,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와 함께 내달 1일 ‘고은 시인 시낭송회 및 음악가 양방언 공연’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평화에 목마르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이라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민동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병현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를 비롯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단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전북 군산 출신인 고은 시인은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를 만큼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문인이다.

유네스코 본부 총회를 이틀 앞둔 이날 열리는 행사에서 고은 시인은 ‘히말라야 이후’ ‘그것은...’ ‘일인칭은 슬프다’ 등 평화와 관련된 시들과 시집 ‘순간의 꽃’과 ‘두고은 시’에 수록된 짧은 시 20여 편을 한국어로 낭송한다.

언어는 다르지만 문화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이번 고은의 시 낭송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피날레 무대에서는 유네스코에 헌정하는 평화의 시 ‘그리나의 노래’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무대에는 양방언이 만든 곡이 함께 연주돼 남다른 의미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 비전’ 선언

광주시가 환경·경제·사회부문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 광주비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은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의 동반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7일 시청에서 운영시장장을 비롯한 조영표 시의회 의장,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비전 선포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선언문에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소통과 공감, 협동과 나눔의 정신으로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협치)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 생태순환도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녹색경제도시 건설, 건강한 시민사회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100년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이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내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992년 유엔 리우선언 등을 토대로 1995년 푸른광주21협의회를 설립했다. 이어 1996년에는 광주환경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 생활 실천 등을 강조한 이 같은 선언은 지자체 중 처음”이라며 “푸른광주21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디자인 도시” 광주, 세계와 공유

국제디자인총회 결산...국제기구 탄생 예고

“디자인 도시” 광주의 미래를 세계와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이음(Design Connects)’을 주제로 17일 개막해 21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2015 국제디자인총회(IDO)는 이같은 말을 요약할 수 있다. 광주를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고유의 디자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브랜드 플랜을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해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개국 디자인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주요 참석인사는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번 슈미트와 항공, 자동차, 호텔 등 디자인컨설팅 전문회사 프리스트먼코리아 창립자인 폴 프리스트먼, 영국 랑카스터 대학교 레이첼 쿠퍼 교수 등 세계 디자인계 석학 60여 명이다.

Ico-d(국제디자인협의회), icsid(국제

산업디자인협의회), IFI(세계실내건축가연맹) 등 국내외 22개 주요 디자인 단체도 참석 멤버였다.

이들은 국제적인 행사인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디자인 도시’ 광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디자인 단체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조직의 탄생을 예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참석자들은 국제적인 디자인기구를 꾸리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장으로 파괴된 삶터와 집을 잃은 난민들을 위해 각국 정부가 디자인 정책을 제안하자는 데도 뜻을 모으는 등 미래 디자인의 비전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원모집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구분	근무처	응시자격
연구개발	경력	광주	☞ 마이컴, 임베디드, VHDL 설계 유경험자
			☞ 전자회로 및 PCB 설계 유경험자
설치 및 A/S	경력	광주 경남	☞ 전기, 전자, 정보통신 전공자
			☞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생산/관리	경력	광주	☞ 품질관리, 전기, 전자 전공자
			☞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전화응대(A/S)	신입 경력	광주	☞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공장장 (황칠추출)	경력	황칠코리아 (강진)	☞ 건식 추출 해당부분 10년 이상 전문 종사자 (연봉 : 6,000~7,000)
			☞ HACCP, GMP 유경험자
인바운드	신입 경력	황칠코리아 (광주/강진)	☞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모집부문 대표이사 수행비서

☞ 공통사항 : 1. 남자의 경우 병역필 및 운전 가능자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1.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원서접수 및 문의사항

1) 접수기간 : 2015년 10월 19일(월)~2015년 10월 31일(토)

2) 접수방법 : E-mail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10(소촌농공단지) 총무부 (우:506-803)

E-mail : ziontech@daum.net

4) 문의사항 : (주)시온테크닉스 총무부 (062)944-3400

(주)시온테크닉스 / (주)황칠코리아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